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7

2018.7.22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 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_ 사편 84:5-7

오늘의 주요기사

- 2 창립예배기도문
- 3 성서칼럼
- 4 교회 소식
- 7 목회칼럼 / 사역 소식
- 8 아가니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7/29(주일) 임시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2018년 6월 24일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에서 찬양하는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주님의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1996년부터 정신여고와 은혜로운 동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8년 건립하여 정신학원에 기증한 김마리아홀의 역사도 올해로 20년에 이른다. 이날 주님의교회 성전인 김마리아홀에 미루나무처럼 모여서 푸르게 빛났던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의 축하연주가 참 뜻 깊었던 까닭이다.

서른 살 주님의교회, 초심을 기억하다

주님의교회가 2018년 6월 24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빌 2:7)던 것을 본받아, 공동체와 이웃을 섬겨온 지난 30년이였다.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사람을 비우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비웠다. 그동안 주님의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며 몸소 행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날의 조출했던 기억들을 더듬어본다.

기억해야 할 30년 전의 풍경

1988년 6월 26일 오후 3시,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 지하 세미나실에서 당시 이재철 전도사와 성도 등 53명이 모여 소박한 창립 예배를 올린 이래 30년이 흘렀다. 당시 이재철 전도사는 <사도행전> 15:36~16:10 말씀을 가지고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라는 제하의 설교를 진행했다. 오후 5시에는 주일 찬양예배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1:1~25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설교가 진행되었다. 이날 시작한 <마태복음> 강해설교는 1992년 4월 19일에 이르러서야 끝났다.

창립 예배를 드리기 이틀 전인 6월 24일 열린 교회창립준비기도회는 7시에서 시작하여 자정까지 이어졌다. 이날 주님의교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주일 헌금의 50%를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에 각각 50%씩 사용하기로 서원하고,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교회’로 결정했다. 이들은 서원을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 헌금의 50%를 미리 떼어놓기도 했고, 부족한 비용은 각자 헌신으로 메꾸었다.

향존직의 임기제가 제안된 것은 1989년 초 초대 이재철 목사가 자신의 임기를 10년이라고 선언하면서였고, 1991년에는 장로의 임기제가 수용되어 1992년부터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무기명 헌금은 1989년 누군가 봉헌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봉헌한 것에서 출발하여, 이재철 목사가 <역대기>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역대상 29:14)라는 말씀을 성서적 근거로 찾아내었고, 1992년 5월 당회에서 결정되면서 바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예배당 무소유의 원칙도 1990년 거론되어,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주님의교회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소박하지만 다양했던 기념행사

창립 30주년을 맞은 6월 24일을 전

후하여 주님의교회에서는 다양한 3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6월 24일 기념주일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예배가 드려졌다. 하지만 일체의 과시성 행사를 피하고 평상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 순서를 넣어 창립 30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2부, 3부 기도는 교회 창립 헌신자인 김도목 은퇴장로와 양동훈 은퇴장로가 맡아서 이날의 의미를 더했다. 김화수 목사는 이날 “사람들만 좋아하는 교회, 주님도 좋아하는 교회”(롬 12:1~2)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이름과 제도에 안주하지 말고, 창립 초기 교회 구성원들과 교회에 충만했던 헌신의 자세를 되새기자는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정신학원 교장과 창립 헌신자 등 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특별 순서로 기념 영상 상영,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특송(3부), 기념 케이크 절단식, 임직식과 퇴임식(4부) 등이 이어졌다.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이보다 앞서, 6월 17일부터는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념사진전이 7월 1일까지 교회 로비 앞 광장에서 펼쳐졌다. 교회 초기 모습부터 신임 담임목사 부임에 이르는 역사를 50여 개의 사진에 담아 전시하여, 많은 교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사진들은 따로 한정판 사진집으로 만들어져 교우들에게 제작실비로 판매되었다.

6월 20일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가 저녁 7시 20분 대예배당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려졌다. 예년에는 찬양대가 돌아가면서 음악회를 준비하여 기념연주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3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또한 연주자와 청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개념으로 준비되었다. 따라서 어린이 합창대, 회중 찬양, 시온 남성찬양대, 주오 연주, 국악팀 연주, 회중 찬양, 권사회 찬양팀, 회중 찬양, 솔리스트 중창단, 연합 찬양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회 내 찬양대가 회중과 번갈아 찬양을 드리면서 화음을 맞추었다. 음악예배에는 총 300여 명의 인원이 헌신했으며, 예배석을 가득 메운 700여 회중이 또 하나의 찬양대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전교인 수련회를 따로 갖지 않기로 했으며, 신앙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한 신앙사경회를 9월 경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돈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와 기록자료 제작, 교인과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브로셔의 개발, 홈페이지 개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함줄함울>에서는 특집 지상토론 “한국사회의 변화와 주님의교회 30년”을 기획하여, 소통, 정치, 경제, 교육, 가치, 환경 등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전문가와 교우들의 기고를 통해 조망할 예정이다.

함줄함울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기도문

처음을 기억하여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창립 30주년기념예배를 허락하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로 시작하여, 교인 숫자의 증가나 교회부흥을 위하여 기도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주께서는 이렇게 큰 신앙공동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신들을 위한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지도, 이를 위해 따로 저축하지도, 땅 한 평 미리 마련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예배처소를 내려 주셨습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해 몇 가지를 서원하였습니다만, 지금 주께서 “지난 30년간 어떻게 이를 지켰고 지금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고 물으실까 봐 두렵습니다.

소문으로만 남아있고 겉으로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송구하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믿고 우리 교회를 찾았다가 실망하고 떠나지 않았나 해서 두렵습니다. 또 그 몇 가지 개혁적인 결단을 자랑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나 해서 부끄럽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헌금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교회 밖으로 보내겠다”는 서원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자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위하여, 부원들의 친교와 단합을 위한다는 구실로, 또 능력과 편이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많은 교회 헌금을 썼습니다.

애급을 떠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우리가 애급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구나.” 이 히브리인들의 불평하는 모습이, 분별없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쓰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식음료 값이 참으로 과하다는 것과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서러움과 아픔을 함께 생각해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는 전기와 화석연료가 얼마나 크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는 인간들의 과소비와 탐욕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하여 덜 쓰고 덜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른 살 된 성숙한 신앙공동체로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에 있는 또 하나의 허울 좋은 대형교회로 자리매김되어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는 자들도 환영받고,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위로받는 교회,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를 위해 더 많이 밖으로 보내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신 주의 신실한 종, 김화수 목사를 때에 맞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직한 성품에 더하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시어 훌륭한 담임목사의 소임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30주년을 맞은 6월 24일 창립기념예배에서 주님의교회의 창립정신을 다시 한번 진솔하게 고백한 김도묵 은퇴장로의 기도문을 여기에 수록하여 초심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2018 항존직 선거

주님의교회에서는 매년 10월 첫 주에 항존직 선거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올해도 선거관리 위원들이 몇 차례 모임을 가졌으며, 그 첫 시작으로 창립기념일인 6월24일 주일에 ‘2018 항존직 선거 시행 공고’문을 게시했다.

올해 항존직 선거는 8월 19일 항존직에 대한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로 시작, 9월 16일의 공천 투표, 10월 7일과 14일의 공동의회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항존직으로 선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

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명감으로 임할 뿐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에 헌신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들은 기본적인 신앙자세를 갖춘 분, 우리 주님의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분이 항존직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당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다짐을 받는 절차를 거쳐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올해도 이처럼 실천적 삶의 신앙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김없이 주님의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2018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2018년 항존직 후보자들에게 받는 다짐

항존직 후보들에게

-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건강한 신앙생활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 * 주님의교회 성도로서, 언제나 교회 목양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 * 교회의 예배 및 사역 활동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라는 성도들을 향한 헌신의 결단과 함께

- *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주일을 성실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 *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성실한 십일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성서칼럼 돌부리

가인과 아벨(창세기 4:1-16) 1

지표 위에 돌아난 돌부리는 언뜻 보기에 마냥 평탄하고 매끄러워 보이는 표면이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땅은 늘 울퉁불퉁하기 마련인데, 세심하지 못한 우리 눈과 생각이 만사가 매끄러운 양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돌부리는 평탄해 보이는 길 위를 앞만 보며 달리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때론 놀라 멈칫거리게 하기도 하고, 때론 거칠게 발 걸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돌부리에 걸려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을 살펴보고, 그간의 발걸음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성서를 통해 우리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마치 이런 돌부리와 같습니다.

이번 호부터 새로 연재되는 〈성서칼럼 돌부리〉는 돌부리같이 우리에게 돌진해오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넓게 이해해보는 코너입니다. 성서를 깊이 읽는다고 함은 출처가 불분명한 임의적 해석이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단편적 교리에 기초한 선입견을 지양하고 성서학적 관점에서 본문 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나 발췌된 본문을 전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또한 그 본래의 역사 지평 아래서 이해해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성서 읽기를 통해 돌부리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평탄한 일상 가운데 불쑥 솟아오르기를 기원해봅니다.

1. 세상의 관심과 무관심, 가인과 아벨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는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의 관심을 받는다. 가족의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성서 기자도 가인의 임신 과정과 출생,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의미까지 자세하게 전한다. 가인을 낳고 하와가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내가 야웨와 함께 남자를 낳았다!”(1절, 사역에 의한 원문 직역) 재미있는 점은 ‘(사내) 아이’가 아니라 ‘장정’의 뉘앙스를 가진 ‘남자(남성)’를 낳았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하와의 고백은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부장 세계의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인을 향한 모든 관심과 배려가 ‘(남자를) 얻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의 이름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에 반해 아벨에 관해선 모두 참매 몰찰 정도로 관심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우”(2절, 개역개정)은 “가인의 아우”로 의역)라는 수식어가 붙은 아벨에 관해서는 다만 등장 순서에 떠밀려 “낳았는데”(2절)라는 한마디 언급이 끝이다.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은 가인의 쌍둥이 형제인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그의 형제”로서 어느 순간 부가물처럼 존재하게 된 것뿐이다. 아벨은 이렇게 거두절미한 결과로만, 그리고 모든 관심과 시선을 독차지한 가인과의 관련성을 통해서만 간신히 인지된다. 본문 내내 아벨은 한마디 대사도 없다. 이러한 철저한 무관심은 설명조차 필요 없는 ‘아벨’이라는 이

름 자체가 대변한다. 아벨의 히브리어 표기인 ‘헤벨’은 곧 사라지는, 또 한 존재 자체가 희미한 ‘입김’이라는 의미이다.

2. 하나님의 시선

야웨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창세기2:15) 하셨는데, 가인은 아담의 적통을 이어받아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의 아우” 아벨은 들로 나가 떠돌며 양을 친다. 그리고 이 둘 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물을 가져와 야웨께 제사를 올린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웨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분명한 ‘이유’에 의해 제사가 거부되었다는 언급은 최소한 성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말 성서는 ‘제사’에 어울리는 어휘로 의역해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주시하여 보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주시하여 보지 않으셨다고 표현한다(4절).

세상 모두는 오직 가인을 주목하여 보고 아벨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은, 아벨을 주시하여 본 것이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시선에 특별한 이유를 달지 않는다. 오히려 불이유가 없어서, 세상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주시하신다.

손경민 전도사

사역 소식

섬김과나눔 세미나, 'for others'에서 'with others'로

주님의교회 부설기관인 (사)섬김과나눔은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월 18일(수) 17:00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 섬김과나눔 사역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사역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년 세미나는 특별히 주님의교회 김화수 담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지역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섬김과나눔 사역의 사명과 발전 방향'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되었다.

본 세미나에서 김화수 담임목사는 디모데전서 1장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와 함께 분회퍼 목사의 "타인을 섬기고 나눌 때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섬김과나눔 사역은 사역자의 의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이제까지 우리는 섬김과나눔 사역을 'for others'의 베푸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행해온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for others'에 그치지 않

고 'with others'로 발전시켜 수혜자나 섬기는 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섬김과나눔의 사랑을 계속 전파하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섬김과나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강이 끝난 후 (사)섬김과나눔의 노봉옥 상임이사가 현재 섬김과나눔이 수행하고 있는 사역과 사역자들을 소개하였으며, 사역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김화수 담임목사와 세미나에 참석한 사역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교회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 부설 (사)섬김과나눔 사역이 'for others'에서 'with others'로 계속 발전하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지역사회 복지와 공익 사역의 첨병이 되기를 소망한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주님의교회 창립교우 한 자리에



지난 6월 24일 저녁, 서울 대치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님의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했던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창립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은 52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김화수 주님의교회 담임목사의 말씀과 양동훈 장로의 기도가 이 자리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여러 사정으로 이후 주님의교회 출석하고 있지 않으나 창립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창립 교인들의 회

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창립 당시 제일 연장자였던 고 이재원 장로의 부인 김영숙 권사, 창립에 큰 역할을 했던 고 김응삼 장로의 부인이자 소설가로서 한국기독교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연희 권사, 제2대 서기장로 고 정재경 장로의 딸로 주님의교회 첫 피아니스트였던 정선인 집사, 교회 창립 예비 단계였던 성경 공부 모임 때부터 많은 일로 섬겼던 이성우, 이상경 권사 부부가 참석, 자리를 빛냈다.

함줄함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영아 1,2부	7월 1일	주님의 교회	교회야, 마을로 가자
유아 1,2부	7월 14일~15일	주님의교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유치 1,2부	7월 21~22일	주님의 교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유년 1,2부	7월 27~28일 (무박)	주님의교회	이웃, 나의 몸같이 사랑해요.
초등 1,2부	7월 27~29일	경기도 용인 한터캠프	The Godspell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
소년 1,2부	7월 27일~29일	제천 청소년 수양관	The Godspell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
청소년부 연합	7월 22일~24일	강화 성산 예수마을	What is Love?
청년부	8월 16일~18일	설곡산 다일 공동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영어캠프	7월 30일~8월10일	주님의교회	"Maker Fun Factory :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청소년사역원 전국 교회 청소년수련회	7월 26일~28일	주님의교회	나의 예수님은 입니다!

교회 소식

2018년 임직식과 퇴임식

2018년 6월 24일 주일 4부 예배에서 2017년에 피택된 항존직 22명(장로 3, 안수집사 10, 권사 9)이 피택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았다. 이날 교인과 가족의 축하 속에서 김광일, 손영익, 조병길 장로, 김국호, 김태진, 배태민, 손상수, 이신형, 임정식, 정권, 정상기, 정유석, 최현배 안수집사, 권석자, 김재민, 송희, 오성자, 유윤실, 윤석춘, 장현주, 장혜숙, 천정희 권사가 안수를 받고 섬김의 임기를

시작했다. (소감은 <함글함글> 396호 14~15면 참조).

한편, 그동안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긴 박대길 장로와 조성득 장로는 이날 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임직식과 퇴임식을 함께한 성도들은 신임 항존직에게 격려와 채찍의 박수를, 퇴임하는 두 분 장로에게 그동안의 섬김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함글함글



교단 소식

정재상 목사, 높은뜻정의교회 위임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임하며 청년부를 섬겼던 정재상 목사가 2018년 7월 8일 높은뜻정의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을 받았다. 높은뜻정의교회는 2009년 1월 높은뜻송의교회에서 분립하여 정의고등학교 강당을 성전으로 창립된 교회이다. 높은뜻정의교회는 창립 후 10년이 지나면서 교인의 수가 3천 명을 넘어서게 되자 2017년 2월 공동의회에서 교회 분립과 함께, 담임목사였던 오대식 목사가 분립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 당시 교단에 놀랍고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십일조나 일정 헌금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교회나 어려운 기관인 개인에게 보내 돕도록 하는 이른바 '정의헌금'을 제정해 신선한 반향을 일으켜 왔던 오대식 목사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경기

도 남양주에서 700~800여명의 성도와 함께 높은뜻덕소교회를 분립개척해 첫 예배를 드린 바 있다.

높은뜻정의교회는 오대식 목사의 분립에 따라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시작하여, 정재상 목사를 2018년 1월 담임목사로 청빙했고, 이번에 위임을 받게 되었다. 높은뜻정의교회는 광성, 푸른, 하늘, 씨앗이되어, 섬기는, 오차노미즈, 덕소 교회,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높은뜻연합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높은뜻연합선교회는 전신인 높은뜻송의교회(김동호 목사)를 모체로 2009년 분립한 높은뜻광성, 정의, 푸른, 하늘 교회들의 연합체이다. 당시 5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던 높은뜻송의교회가 본 교회를 없애고 작은 교회들로 분립한 일 자체가 교계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함글함글

여름 수련회 소식 | 장애인사역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장애인사역부 여름 수련회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7월 7일(토),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0여명의 장애인사역부 지체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올해 여름수련회는 영락농인교회 김용익 담임목사님께서 설교와 특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연경 사모님께서 수화를 통역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예배다부 지체들은 농인들이 쓰는 언어인 수화로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말씀으로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 수화통역사이신 이연경 사모님의 통역으로 청인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라는 주제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각각의 기준을 두고 서로를 구분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점들 때문에 판단하거

나 판단 받고, 어떤 이는 이러한 과정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진실 된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판단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가지의 기준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신앙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장애인사역부 지체들과 봉사자들은, 나의 상처, 아픔조차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장애인사역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지혜 전도사 / 장애인 사역부

선교지에서 온 편지

코스타리카에서 온 편지

코스타리카 선교사 금상호/김미경 - 잔디, 강산 가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올리며, 늘 교회에 감사한 마음과 여러 가지 사랑들을 기억하며 재미있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8년전, 1990년 1월 첫주에 주님의 교회에 총각 전도사로서 처음 부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부목사가 되고, 아이 둘이 생기고, 5년 7개월을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한 후 1995년 8월 첫주에 코스타리카로 와서 23년째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지내온 세월만큼 여러 가지의 변화들과 크고 작은 새로운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지내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지났으니 개인적으로는 거의 교회의 역사만큼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왔던 나이가 이제는 5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고, 3살, 1살에 왔던 아이들도 몇 년 전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해야 할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는 얼마쯤 있다가 한국으로 가게 될까를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은퇴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까지 되었으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기쁨들과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목회적/선교적 다양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들의 계획에 차이가 있음도 여러 번 절감하면서 지내오



고 넘어서기도 한 시간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들이 그렇듯이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늘 뒤늦게 깨달은 사실들은 모든 것이 그분의 은총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면, 이곳에서 사역한 세월만큼 사역이 늘어나기도 했고, 동시에 사역의 조정 - 정리 - 업그레이드, 등의 변화들도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 개척과 건축들을 꽤 많이 했었고, 시간이 갈수록 건축보다는 지도자와 리더들을 세우는 훈련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구조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에 모이는 월요 목회자 모임, 한 달에 2번 2곳에서 토요일날 하는 교사 훈련 모임, 1년에 12번을 하는 인디언 지도자/리더 훈련(6번은 기도실에서, 6번은 자노깨찰 인디언 지역),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들, 안경과 수지침 사역, 성경 보급과 성경 읽기, 쓰기 사역, 목회자들 수련회, 청년들 선교지 탐방, 급식 사역과 교도소 사역 협력, 등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도, 관심 덕분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역을 감당하

기가 점점 어려운 것이 교회와 선교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23년이 지났고, 언젠가 하게 될 은퇴를 위한 생각들도 가끔씩 하기도 하면서 사역하고 있지만, 선교는 늘 현재 진행형이요, 계속되는 정탐을 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레임과 기대, 두려움과 기도를 더욱하면서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현장입니다. 이런 선교적 현실과 사역의 과정들이 목회할 때보다는 아성적인 부분들을 더 활발하게 드러나게 해 주기도 하고, 선교의 재미와 의미, 도전과 몸부림, 기도와 기쁨 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보다는 성격과 삶의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선교지에서의 시간만큼 변화되어진 것 같은 부분들을 스스로도 느끼기도 합니다만, 선교지 곳곳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들과 감동, 그리고 다짐과 결단, 새로운 선교적 구상들과 실천들을 경험해 가면서 선교에서는 '선교 현장'들이 제일 중요한 1차적 텍스트라는 사실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더 자주 선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겪으면서 선교적 실천들을 해 가고자 여러 가지 애들을 써 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들지만 선교의 기쁨이고, 감동이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어려운 현실들과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기도 하고,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선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하는 경제적 어려움들과 맞물려 선교적 현실과 선교지에서의 모습과 현실들도 이전 시대와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되어가고 있

음을 듣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땅끝 선교를 말하면서도 때로는 거리상으로만 따지면 한국으로부터 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전보다는 여러면에서 소외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들도 늘어간다고 말하는 현실적인 모습들을 접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오랜 세월동안 계속해서 먼 선교지에서도 위와 같이 여러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협조해 주시는 교회와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늘 깊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 하게 됩니다.

선교와 먼 선교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언제나 설레임과 기대와 기쁨이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인



도하심과 임재하심이 더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는 귀한 땅끝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2년 정도에 걸쳐서 인디언 지역에 지어 놓은 작은 기도실이 제 선교의 새로운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선교적 은총들과 새힘을 주는 기도와 능력, 쉼을 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선교팀으로, 아니면 큰맘 먹고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교우들의 지원과 기도, 관심이 선교사에게 지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



목회 칼럼

선한 힘(능력)

주님의 선한 힘(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위로 아침을 맞이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힘(능력)은 굳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능력)에 대해 잘 표현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시는 1944년 12월 19일에 디트리히 본회퍼가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들어있던 '옥중시'로 독일 작곡가 지크프리트 피츠(Siegfried Fietz)에 의해 찬양곡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힘들에 관하여

1. 선한 힘들에 신신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

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2.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른다. 아,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주소서.

3.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런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4.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5.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준 양초들이 오늘 따뜻하고 밝게 타

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6. 적막이 우리를 깊이 둘러쌀 때 저 세상을 가득 채운 소리를 듣자,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로 퍼져나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찬미 소리를,

7.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 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 Bonhoeffer, D. 손규태, 정지련 역. 『저항과 복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PP. 775~776.

본회퍼의 고백이 담긴 그의 시처럼 주님의 선한 힘(능력)은 우리를 더불어 살게 하고, 구원을 주며, 용기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게 하며,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한 힘(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용 목사

감사 편지

주님의교회와 봉사자에게 감사를

춘천호스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기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섬기고자 1999년 10월에 설립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입니다. 2000년 11월에 독립시설 호스피스를 시작하였고 2011년 12월에 호스피스병원을 개원하여 현재 15명의 직원들과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환우들을 돌보고 있으며 지난 19년 동안 1,300여 환우들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어느 날 주님의교회 김양자 장로님께서 저희 춘천호스피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후, 올해로 8년째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양자 장로님께서 봉사자들과 함께 저희 호스피스에 오셔서 환우들을 위한 발마사지와 청소, 세탁물 정리, 미술치료 등 다양한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월요일은 환우들이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의교회 봉사자들이 환우들

에게 아로마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봉사뿐만 아니라 주님의교회에서 매달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어렵게 사역하는 저희 호스피스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말기암 환우를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교회와 봉사자들이 계시기에 저희 호스피스는 큰 격려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는 주님의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 그리고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김양자 장로님과 호스피스 봉사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운 장로 / 춘천호스피스 회장

사역 간증

주일 새벽, 주방의 섬김과 나눔

주방 사역을 하고 싶다는 남편과 함께 시작한 봉사가 어느덧 13년이 지났네요. 새벽 국수를 드시러 노숙자 분들이 오시는데, 어느 날 그리 오래 보지 않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며 갈비탕 쿠폰을 주시기에 마음만 감사히 받고 사양하였습니다. 얼마 후 6월의 어느 주일 아침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씩 하라시며 예쁜 봉투 3개를 주셔서 열어본 순간, 깨끗한 천원권이 봉투 하나에 다섯 장씩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많이 해드린 것도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커 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인쇄하고 직접 봉투를 하나하나 자르고 접어 그 속에 넉넉한 사랑을 담아주시며 더위에 건 강도 챙기라는 말이 마치 더 많이 베풀고 도우라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가 더욱 섬김과 나눔이 넘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정옥영 권사 / 주방부

아기나들이



김서진 아기

2018년 4월 9일생

1.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2.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서진이가 되게 해주세요.
3.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받고, 사랑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서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김진성 / 엄마 정미리, 2018년 7월 8일 2부 예배



단이안 아기

2018년 3월 30일생

1.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2. 사랑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3. 본인과 주위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아빠 단 일 / 엄마 김지수, 2018년 7월 8일 3부 예배

교회 소식

교역자와 남선교회 족구 대회



2018년 7월 15일, 주님의교회 교역자와 남선교회 대표 선수들이 교정에서 족구 시합을 가졌다. 모두 4팀으로 나뉘어 펼친 경기에서 교역자팀이 우승했다. 대회를 마친 후 남선교회 선수들과 교역자들은 함께 어죽과 보쌈으로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함글함울

알립니다

2019년 <함글함울>을 새롭게 빛낼 역량 있고 젊은 편집장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글함울>의 편집장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함글함울>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지면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자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분.
- 신문사, 잡지사, 학보사, 출판사에서 취재, 편집 경험이 있거나, 없지만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내 여러 사역 활동을 두루 알고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함글함울> 기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
- 토요일 아침 8시에 있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 만 50세 미만이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2019년을 앞두고,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글함울>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위에 적힌 여러 조건에 맞아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글함울

바로잡습니다

6월 24일자 16면 '알립니다'에 전교인 큐티 세미나 3차와 4차 일정이 잘못 공지되었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세미나 일정이 1주일씩 순연되었으나, 편집일정 관계로 변경되기 전 일정으로 안내하여, 몇몇 분들에게서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함글함울 팀 모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8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8/19(주일)
- 당회의 공천 투표 : 9/16(주일)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10/7(주일), 2차선거 10/14(주일)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기준)	자질 및 성품
장로	7년	10년	만40세 - 65세 미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안수집사	5년	5년	만35세 - 70세 미만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권사	5년	5년	만35세 - 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자혜의 분별력 있는 자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항존직(은퇴장로, 사임장로, 시무-은퇴 안수집사, 시무-은퇴권사, 협동장로)
- 겨자씨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총 투표 참여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총 투표 참여자의 1/2 이상 득표자

2018년 6월 24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알립니다

1. 2018 항존직 선거를 위한 피택 후보자 명단 확인

기간 : 7/15, 22(주일), 교회1층 복도

- ▶ 각 항존직별 후보자 명단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수정내용이 있으시면 수정요청서에 적어 주십시오.

2. 유학생을 위한 특별 입교 및 세례예식

대상 : 교회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유학생

교육 : 7/15, 22(주일) 오후 1:30~3:00 다목적관(4층)

세례예식 : 7/29(주일) 3부예배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3. 영어캠프 (초등3~6학년)

일시 : 7/30(월) ~ 8/10(금)

문의 : 김경배 전도사(010.2782.2585)

4. 휴무안내

▶ 전화상담부 : 7/23(월) ~ 8/26(주일)

문의 : 조신복 집사(010.4023.4035)

▶ 도서실 : 7/24(화) ~ 9/1(토) * 주일은 정상운영

문의 : 전선재 안수집사(010.4139.4162)

▶ 설만한물가 : 7/30(월) ~ 8/15(수)

문의 : 이동숙 권사(010.6389.3300)

▶ 주방 : 7/29(주일), 8/5(주일)

문의 : 김경미 권사(010.7400.0754)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 7/23(월)~8/26(주일)은 휴무입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